

익산 마을전자상거래 대박 군산시, 농민 공익수당 지급

3분기만에 20억원 수익 창출... 농촌 신성장동력 자리 품질 · 맛 좋은 농산물 제 역할 톡톡... 농가에 웃음꽃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농가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3분기만에 20억의 수익을 창출하며 농촌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익산시는 올해 초 계획했던 매출 목표는 10억원이었으나 9월 현재 기간 대비 2배에 달하는 20억 매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농가들의 정성으로 탄생한 품질 좋고 맛 좋은 농산물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풀이되며, 시는 농가들의 뜨거운 호응에 따라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익산시는 올해 IT전문가와 마을도우미를 채용하고, 출하방식을 기존 개별농가 중심에서 마을단위 공동 출하로 변경해 전자상거래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통해 문턱을 낮췄다.

현재 마을전자상거래는 네이버와 옥션, 지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참여농가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IT전문가가 직접 소포물에 상품 등록과 오픈마켓 판매를 대행해주고 있다.

또한, 전문가관에 의뢰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상품정보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품질

강화를 위해 신선도와 포장상태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소비자에게 한층 더 어필하면서 판매에 날개를 달았다.

이와 함께 현재 트렌드에 맞춰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1인 미디어 방송실을 북부청사에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가가 유튜브와 SNS로 소비자를 직접 만나 농산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마을전자상거래 입점농가 홍보를 위해 청년 창업농 박영철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농산물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포장·가공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익산시 공식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이 밖에도 익산시는 택배박스 구입비용의 50%와 판매단가 7,000원 이상의 판매된 상품에 한해 배송비를 건당 2,500원씩 최대 400건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계약택배 제도를 도입해 택배 무게와 거리, 수량에 상관없이 가격을 적대화해 농가들의 물류비 절감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농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소농·영세·고령농이 판로 걱정없이 안심하고 농사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3분기만에 20억의 수익을 창출하며 농촌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익산 고용안정일자리센터, 지역 일자리 창출 '앞장'

8월 한달 간 일자리 41건 발굴

지난 7월 말 문을 연 익산시 고용안정일자리센터가 일자리 발굴과 구직자 상담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일 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8월 한달 동안 일자리 발굴 41건, 구직자 상담 308건 등 활발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취업 상담, 구인 채용의뢰 등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장 구인·구직 발굴 지원단을 통해 (유해산업 외) 6개 기업에 구직자 1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앞서 시는 지역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마련하고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

하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10개 기관과 지난달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찾아가는 맞춤형 취업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LH(휴먼시아)아파트 6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학생들의 취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역의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취업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기술·고용연계 컨설팅, 근로환경 개선 생산현장 체질강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7월 23일 문을 연 일자리센터는 1:1 맞춤형 취업연계 지원을 통한 일

자리 창출 구직·구인 현장상담을 통한 일자리 발굴,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지원 등 고용안정과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상공회의소 1층에 위치해 있으며 구인·구직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월~목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 상담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한 시민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일자리센터가 생긴 것을 알게 되어 상담을 했는데 일자리를 소개해 줄 뿐 아니라 면접에 동행해 주셔서 취업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취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7505명 대상 농가당 60만원

군산시가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군산시는 농가 7,505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45억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7일부터 지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영농규모 1,000㎡이상 농가 중 2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외대상자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 양성평등 실현 촉진 유공자 시장표창

군산시가 양성평등 실현 촉진 유공자들에 대한 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군산시는 2020년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양성평등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수상자로는 단체부문은 ▲한중교류협회 군산지회, 개인부문은 ▲이상순 한중교류협회 군산지회장 ▲진신아 대한약사회 군산시 여약사회장 ▲김성수 (유해산업 대표, 공무원부문) ▲한태은 수송동행복지센터 복지지원팀장이 선정됐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매년 한

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이다.

군산시는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동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7,505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7일부터 추석전인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지급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추수명절을 앞둔 지역상권에 희망과 활력을 줄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 양성평등 주간 기념 표창

군산시가 양성평등 주간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해 군산시에 사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공헌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성평등 주간을 9월 첫째 주로 조정·지정했다.

한편 시는 양성평등 주간 기념 표창을 지난 3일 예정이었던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에서 수여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기념식 취소로 별도 전달할 예정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익산소방서, 화재시 인명피해 저감 예방활동 강화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화재 시 대피유도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내 대형마트, 호텔, 영화 상영관 등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물에 대해 예방활동에 집중한다.

화재통계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3년간 화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사상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가 발생하는 화재는 연간 300건 미만으로 전체화재의 0.6% 정도이므로 집중 관리를 통해 인명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가연성 건축재의 사용으로 독성가스의 발생 속도가 빨라 화재 시 대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익산소방서에서는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물에 대해 ▲피난소 방안전교육 강화 ▲매체(신문·방송) 활용 홍보 ▲피난대피중점 소방훈련 ▲화재안전정보조사 시 관계인 피난로 확보 계도 ▲대형전관관 활용 홍보



영상 송출 등 다방면에 걸쳐 '선 대피 후 신고'의 페라다임 전환에 나설 예정이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에는 무엇보다도 인명 대피가 가장 중요하며 모든 시민이 피난 우선이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익산시, 감면해택 연장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감면해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일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됨에 따라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으며 지금까지 약 2,000여만 원의 시장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현재 시 공설시장은 금마, 합월, 황등, 남부, 여산시장 등 5곳으로 160개 이상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위해 사용료 감면 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2020 자기혈관 숫자알기 익산시 비대면 교육홍보

군산시가 비대면 교육홍보 캠페인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자기혈관숫자알기 온라인 캠페인'을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자기혈관숫자알기란 스스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기존의 체험형 프로그램 대신 비대면 교육홍보 캠페인으로 추진한다.

캠페인 참여방법은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www.gunsan.go.kr/health)에 접속, 공지사항에서 '자기혈관숫자알기 온라인 캠페인'을 클릭,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관한 기초상식 교육 후 퀴즈 풀기이다.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하여 모바일문화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